

## 하나님의 저울

단 5:24-28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벨사살 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은 문무백관 천여 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술을 부어 마신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쓰는 그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들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그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구리, 목석 따위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시시덕거리며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잔치를 하는 도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벽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무엇인가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때 이것을 보고 있던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 있던 문무백관들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해석해서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에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런 뜻을 잘 알아낼 뿐 아니라 신비스런 일까지도 잘 알아낸다지? 자, 그러니 이제 저 벽에 써 있는 글자를 읽어 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 보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대에게 왕족이나 입는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겠네. 또한 영예를 뜻하는 금목걸이도 목에다 걸어 주고 이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 주겠네."(단 5:16)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상과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거나 임금님께서 간직하거나 하시지요. 나는 그저 임금을 위해서 벽에 써 있는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글을 해석했습니다.

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나라가 지속될 햇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을 내버리실까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글귀였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로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강팍해질 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니 그 높아진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으로 변해서 미쳐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낮추어 들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왕궁의 산해진미를 먹던 왕이 들풀을 뜯어먹게 되었고, 왕궁의 호화로운 상아 침상에서 자던 느부갓네살 왕이 비와 이슬이 내리는 들판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왕관을 썼던 머리는 미쳐서 그만 독수리 머리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멸망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그러한 사실을 친히 보고 알면서도 겸비할 줄 모르고 향락에 도취되기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부어 먹으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날 밤에 다리오 왕이 인솔하는 메대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문무백관이 칼에 찔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여러분, 그 날 밤의 비극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산해진미와 좋은 술을 마시며 연회하던 자리가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황금 초롱불에는 칼 빛이 번쩍였고, 검푸른 유리 같은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흥겹던 노래 소리는 비명과 신음소리, 애원과 후회의 절규 소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모자라 버림을 받게 되어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무한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도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위를 하나하나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달아보시고 가정을 달아보시고 나라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정량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악을 쌓아 어느 정량을 채우면 징계와 심판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축복받을 일을 자꾸 하면 축복이 오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본인 당대에 못 받으면 자손 대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정량을 채우면 응답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정량을 채워서 징계와 심판을 받지 말고,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해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이나 서원예물을 정성껏 일천 번만 드린다면 큰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십일조를 드려도 한 1,000 번쯤 드린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1,000 번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한 원인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벨사살 왕은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일찍이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여 멸망하지 않은 개인도 국가도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금은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우상 숭배만으로도 무서운 죄악인데 하물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건드리거나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주일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성수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므로 세상 다른 요일과 구별되게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일본이 주일을 없이 했다가 망했습니다. 독일이 주일을 없앴다가 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은 230년 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선조였던 청교도들이 성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이나 학교를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해야지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대로 내 것과 나라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그 개인이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말라기 3:8에 보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나?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너희는 수확을 하고서도 내게 십일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떼어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칠 때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 그 이상의 손해가 오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약속한 물질은 힘닿는 대로 그것부터 바쳐야 합니다. 신명기 23:21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예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으면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예물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헌금으로 드린 물질이나 교회의 비품은 성별된 것이므로 이것을 사사로이 쓰거나 오용하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나 예언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종을 헐뜯고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깔보아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삼상 2:30)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2.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비행기가 폭격할 때는 반드시 한 두 바퀴를 먼저 돌면서 경고를 한 다음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단번에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먼저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다음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고 도리어 축복을 받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부친이 교만하다가 멸망한 것을 알고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역대하 36:15, 16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타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헛소리로 들었으며 주님의 종들을 웃음거리로 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살길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요,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데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환경을 통해서 경고가 오는데도 계속해서 강박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하는 말씀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면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3. 벨사살 왕은 교만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했습니다. "나 밖에 없다" "나 뿐이다" 하는 마음은 참으로 위험한 마음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내가 해야 한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의 부족과 무능과 결핍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약 4:6)" 고 했습니다. 웃시야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16:5 에 "남을 우습게 여기며 저 잘난 멋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니, 스스로 벌인 짓은 그대로 되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도 물질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만들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고린도후서 3:5 에 보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한 까닭은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제고집을 피우고 교만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저울에 정량을 채우는 복 받을 일을 많이 쌓아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